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거부정당 총선심판촉구 시민사회결집!

제246차 화요집회



10년 전 2월 17일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조직적이고 방대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보호책임(R2P)을 적용하여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권고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도 11년만인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오는 3월 3일 8주년이 된다. 하지만 핵심기 구인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출범하지 못하고 법은 사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246차에 이르는 ‘화요집회’ 등을 통하여 민주당에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해왔다. 특히 작년 2월 28일 200차 화요집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다수의 단체대표들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계속 불응할 경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유엔 총회가 19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끝내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복송,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강행 등으로 2500만 북한동포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법치국가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산시키는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결집, 246차에 이어 2월 13일 247차 화요집회에서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2024. 2. 6.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북한인권단 체총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겨레얼통일연대, 물망초, 6·25전쟁납북인가족협의회, 북한인권시민연합, NK지 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와연대, 남북통일당,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자유실천연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 파만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 나라사랑기독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북한전략센터, 모두모이자, 한 태평양문화연구원, 국군포로가족회, 한국노년인권협회,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